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입니다.

<2019 산학협력 EXPO - 대학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는 대학의 리빙랩 사례를 국내·외를 아울러 탐구하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주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여러 대학의 LINC+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대학과 지역사회 협업 강화와 지역사회 혁신인력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R&D 비중은 날이 양적 성장을 이룩하여,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78조8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세계 5위 R&D 투자국에 등극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기술이전율은 20%대, 사업화율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보여 연구개발의 눈부신 양적 성장에 비해 연구 성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개발투자가 상용화보다는 논문이나 특허 등 과학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과 시장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리빙랩'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 공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 모델입니다. 그 한 예로 저희 지역인 대전시 유성구에서는 갑천 '물고기다리'의 하천범람 피해를 리빙랩 방식으로 풀어낸 '건너유 프로젝트'가 한국의 리빙랩 실험 1호이자 성공사례 중 하나로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도 '주민주도형 리빙랩 마을' 조성되어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와 놀이공간 개선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이 함께 지역사회,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우리 실생활과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중심에서 인재양성과 연구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대학의 위상에도 큰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포럼이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사회-대학-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사회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Monica Veeger 교수님, Windeshei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Erna Koekkoek 국제코디네이터님, 네덜란드 교육진흥원 양정운 원장님, 고창 책마을 해리 이대건 총장님, 창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김경연 센터장님을 비롯한 여러 패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공유된 다양한 국내·외 사례와 고견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학협력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홍남표입니다.

대학리빙랩포럼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기획한 대학리빙랩네트워크 참여 교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학지원의 무거운 책임을 다 해주고 계신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학은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젊음이 있고, 지식인이 있고, 기술과 물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산업을 이끌수 있는 동력이 대학에 모두 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NSF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IUCRC는

지난 30년간 지속해온 프로그램으로,

대학간 네트워크와 지역의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경제 뿐 아니라,

글로벌 혁신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의 일자리와 국가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이 중심이 되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혁신과 전문인력의 공급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리빙랩(Living Lab)은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글로벌 사회 문제에 동참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품격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한국연구재단도 2019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관으로 인증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화 노력이 인정되어 글로벌 연구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셈입니다.

지역과 함께하고 있는 대학의 구성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대학리빙랩네트워크의 의지와 활동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정부와 협조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 노력에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드리며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홍 남 표**





## 세부 프로그램

- 일 시 : 2019년 11월 7일(목), 10:00 ~ 12:30
- 장 소 : KINTEX 제1전시장 중회의실 212~213호
- 주최 및 주관

조승래 의원,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경남대학교 LINC+사업단, 경상대학교 LINC+사업단,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 연구소, 계명대학교 LINC+사업단, 대전대학교 LINC+사업단, 동국대학교 LINC+사업단, 동명대학교 LINC+사업단, 동서대학교 LINC+사업단,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중앙대학교 LINC+사업단, 충남대학교 LINC+사업단, 한남대학교 LINC+사업단, 한림대학교 LINC+사업단, 한밭대학교 LINC+사업단, 호남대학교 LINC+사업단

- 후원 :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 프로그램

1부	09:30~	등록
	10:00~10:30	대학리빙랩네트워크 협약식
2부	10:30~10:40	대학리빙랩네트워크 포럼 개최식 축사 및 인사말
	10:40~11:00	발표1 (Monica Veeger / 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Mieke Veerman / Windeshei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nelies Harps-Timmerman / Windeshei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네덜란드 대학 리빙랩 운영사례
	11:00~11:20	발표2 (이대건 : 고창 책마을 해리 촌장) : 지역을 바꾸는 생활속 실험과 혁신 - 고창 책마을해리 사례를 중심으로
	11:20~11:40	발표3 (김경년 :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 : 도시재생 창동골목에서 놀기 리빙랩
	11:40~11:45	장내정리
	11:45~12:25	토론 - 좌장 (한동승 :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장) - 토론자 양정모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장) 정은희 (경남대학교 LINC+ 지역사회혁신센터장) 김성우 (커넥티드컴퍼니 대표) 김영아 (충남대학교 교수) 김민수 (동국대학교 교수)
	12:25~12:30	전체 기념촬영 후 정리







발표자료\_ 목차

- ▶ 발표1\_네덜란드 대학 리빙랩 운영사례 ..... 13  
 Monica Veeger | 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Mieke Veerman | Windeshei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nelies Harps-Timmerman | Windeshei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 발표2\_지역을 바꾸는 생활속 실험과 혁신  
 - 고창 책마을해리 사례를 중심으로 ..... 27  
 이대건 | 고창 책마을 해리 촌장
  
- ▶ 발표3\_도시재생 창동골목에서 놀기 리빙랩 ..... 57  
 김경년 |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
  
- ▶ 토론
- 양정모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장 ..... 71
- 정은희 | 경남대학교 LINC+ 지역사회혁신센터장 ..... 75
- 김성우 | 커넥티드컴퍼니 대표 ..... 85
- 김영아 | 충남대학교 교수 ..... 89
- 김민수 | 동국대학교 교수 ..... 95





[발표 1]

# 네덜란드 대학 리빙랩 운영사례

- ▶ Monica Veeger | 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Mieke Veerman | Windeshei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Annelies Harps-Timmerman | Windeshei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Living la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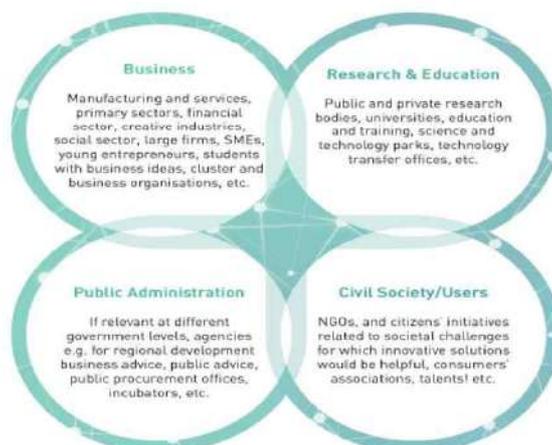
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The Nether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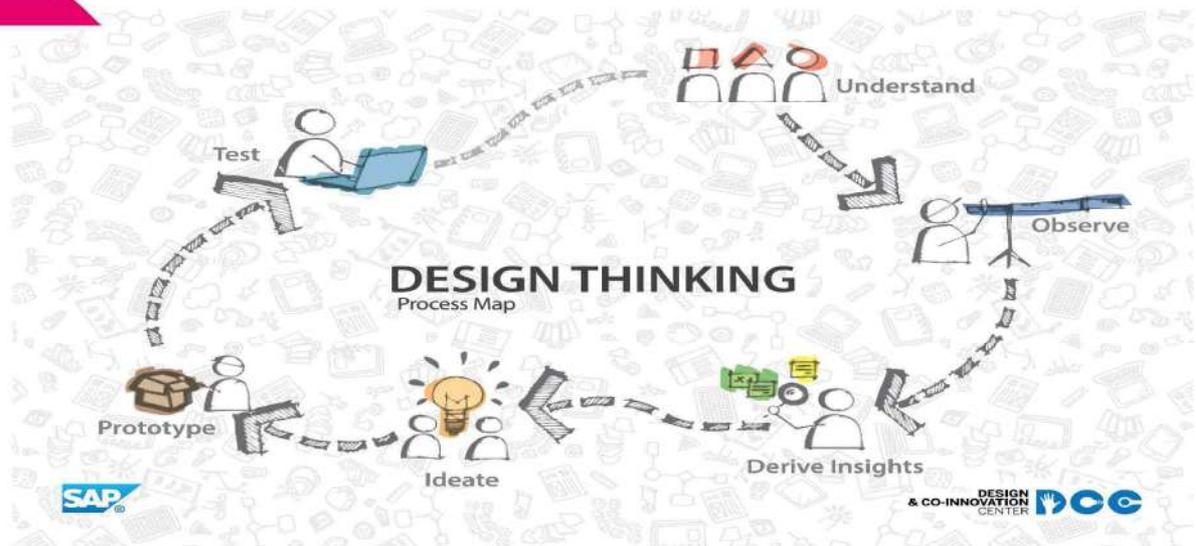
A way to success, Dutch experience:

## *Quadruple helix*

- based on challenge
- involve –co creation
- social innovation
- events



## A way of working to come to meaningful social innovation to add value



## Cultural and historical opportunities in the Nether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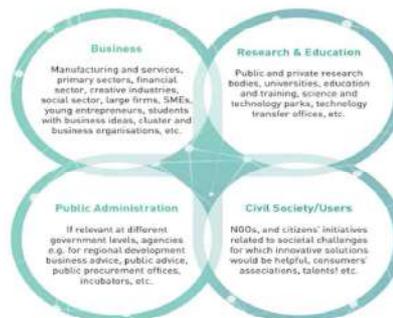
- > hierarchy hardly there
- > citizens involvement high
- > responsibility placed with citizens by government
- > individualization advantage and disadvantage

Business partners

Companies, foundations like Philips or even Stella foundation in Seoul

Business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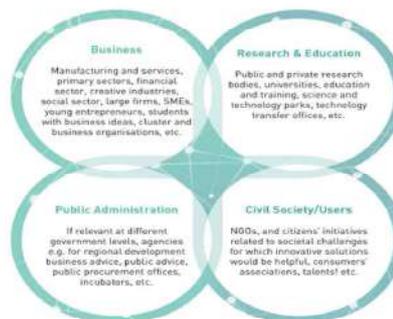
Own network important



Governmen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ike

municipality of Tilburg – challenges for start ups, competition best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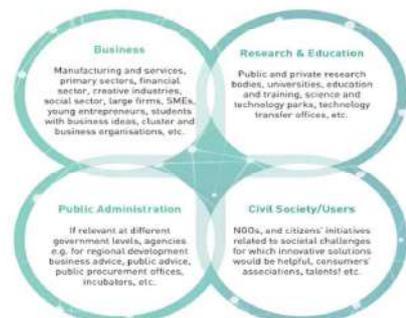
Target group, citizens

co creation, together with, field research



Education programs  
changes way of educating students

Challenge based  
project based



### What do you need

- Other way of educating, group work,
- More freedom in choice
- No lectures - coaching
- Responsibility with the students
- Project based, challenge based, problem based
- Using network of all professors AND students
- Student may make mistakes

What do you need?

### Commissioning parties

- Stella foundation  
group of 14 students in Seoul
- Help Stella foundation with their mission make people happy in Seoul

## For example Brainport

### Network organisation

- Government: municipality of Eindhoven, police, health care
- Education partners: Fontys, Technical university Eindhoven, Summa
- Companies: Philips, high tech companies, ASML etc.
- Citizens: citizens of Eindhoven

## For example Brainport

### Network organisation working together to increase quality of life of the inhabitants and care takers at nursing home Vitalis

- Government: Health nursing home Vitalis - dementia
- Education partners: Fontys, Technical University Eindhoven, Summa, students of health care, ICT, industrial design
- Companies: Philips health, high tech companies, &Happy gaming for health
- Citizens: care takers, inhabitants of Vitalis.



- <https://andhappy.gamesfor.health/>
- We are happy when you are happy  
We can't make you happy without you  
We need friends to make people happy  
That's why we are called &happy  
We are nothing alone  
We can't do this on our own  
We always need others to make it work  
People, friends, you & us  
&happy because that's what we're all about  
To make you happy & healthy

# Living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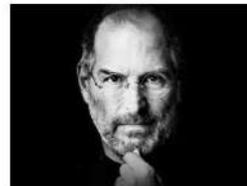
## Good Life

UAS Windesheim, Zwolle The Netherlands

Annelies Harps-Timmerman MSc  
Mieke Veerman MEd



“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



Steve Jobs  
1955-2011

## Program directors LivingLab Good Life Department Applied Gerontology



Annelies Harps MSc

[AE.Harps-Timmerman@windesheim.nl](mailto:AE.Harps-Timmerman@windesheim.nl)

+31 (06)-28796801



Mieke Veerman MEd

[mieke\\_veerman@windesheim.nl](mailto:mieke_veerman@windesheim.nl)

+31 (0)6-22749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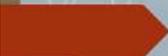


## LivingLab Good Life

The Design & Innovation environment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Applied Gerontology

Dual objective:

- Offering a powerful & authentic learning environment for students
  - &
  - Designing innovative & tailor made age friendly products, services and concepts with education, researchers, professionals, senior adults, government and business
- 



Every great design  
begins with an even  
better story.

Lorinda Mamo



## The story of the LivingLab: *it started with just one question*

### WHAT IF...?

- We design education based on **real life** questions in stead of theory based learning?
- We don't figure out this new educational program in advance, but **develop and implement at the same** time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
- We **involve our end-users** [target group] in all phases of our educational program
- We start with the **questions of our end-users** in stead of the questions from [professional] clients?

Every big change starts with a small step

## The story of the LivingLab: *what happened*

- Huge increasement in development students professional & personal competences
- Life changing experiences for seniors
- Friendships for life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 Enthusiasm & energy
- Overwhelming interest in our LivingLab -method



Dare to be changing in an aging world

## The story of the LivingLab: *where are we now?*

- Growing sense of shared ownership: education-seniors-government-professional stakeholders
- High potential to design valuable new 'age friendly' products and services by connecting knowledge and expertise from different disciplines
- Demand from the professional field to work out the LivingLab-method and make it available to local authorities and organizations
- Future proof education by offering a powerful, authentic and multi-disciplinary learning environment

Start small, nail it and make it big.

## The story of the LivingLab: *what's the secret of our success?*

### Our LivingLab is:

- Living
- Self learning
- Evolving
- 'Permanent beta'
- Based on three unique characteristics:
  - Value driven design method
  - Autonomy supportive teaching style
  - Innovative research method



LivingLab Good Life:  
*learning to be life changing*

- + Value driven design
- + Autonomy supportive teaching
- + Innovative research

Creates a **self learning & evolving ecosystem** with **simple solutions** for **wicked problems** in an aging world.



[발표 2]

# 지역을 바꾸는 생활속 실험과 혁신

— 고창 책마을해리 사례를 중심으로

▶ 이대건 : 고창 책마을 해리 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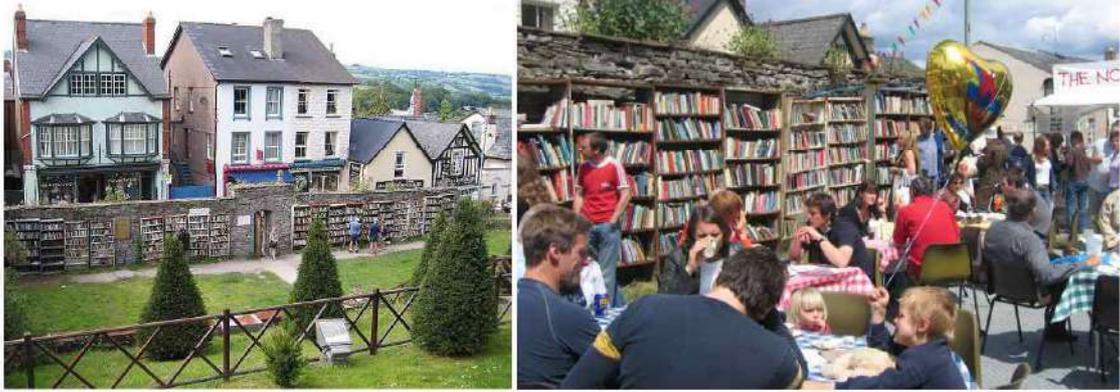


지역을 바꾸는 생활속 실험과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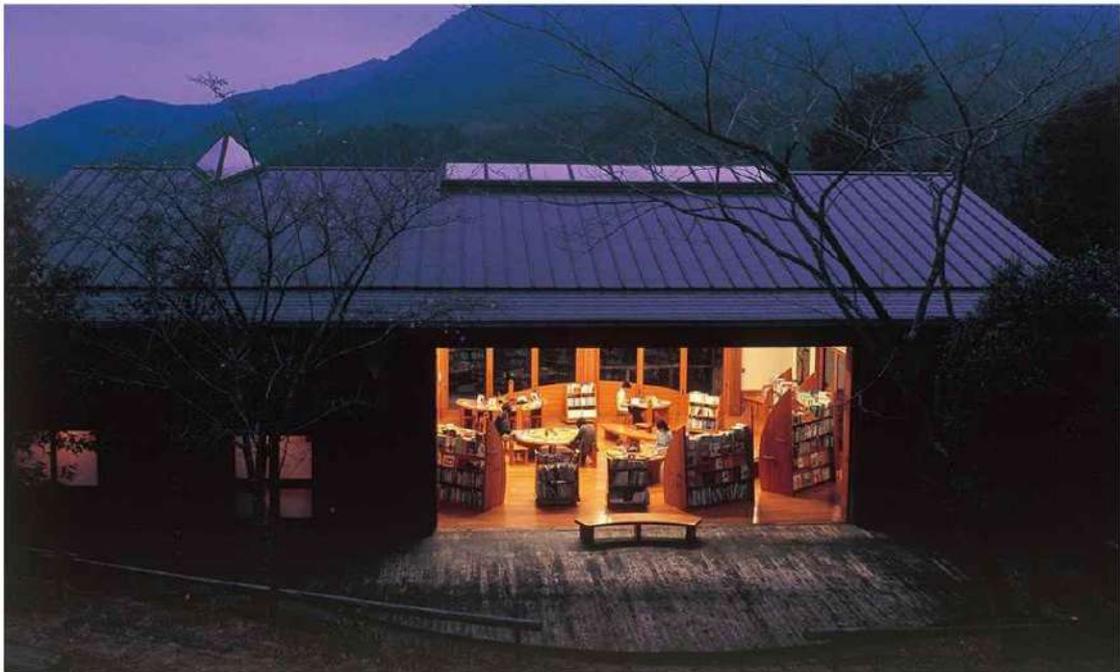
함께 읽고 쓰고, 펴내는 마법 공간  
책마을해리



Hay On Wye



木城えほんの郷



연중기획 나는  
책인지를 아려다



책으로 마음을!  
이대건  
'책마을해리' 촌장

## 폐교에서 책농사 짓는 고창의 해리포터

그림: 오창환 기자 [ohwang@chosun.com](mailto:ohwang@chosun.com) 사진: 최현정 편집: 김지영, 기지  
눈길 밖으로 글은 손가락 바리에 연필을 쥐다. 비동태를 글  
씨가 술을 준다. 호미같은 크로지한 연필 쥐는 근육은 다른  
모양이다. 왼쪽 고창군 해리면 책마을, 독실해, 나무책, 책  
알뜰, 화물책... 끝내운 나에게 신랄 열광도 책들로 못 보고  
사립과 일용마음을 지키면서 여권을 남기나 바라보고 있다.  
책상 앞에 앉으면 책 읽는 아리아리아들이 고만만 몸을  
끌고 북으로 댕이면 마을 책으로 모여든다.

“오늘 마을이 폐교라고 다들 말해다. 학교 하나라고 다지는  
중 알았는디 다들 다지진 않았다. 나는 일하는디 겹쳐가 와서

아이가 동무 하겠는디 모르구 했다. 겹쳐는 뒷집 지고 셋  
타라 그제도 고창다”

규모 커진 손으로 힘기워 사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말종법  
도 틀리고 시문 송지자간 “쓰잘래했던 일상이 화사한 꽃그림  
으로 바뀌고 생활한 글로 화살이었다. 웃고 울고 수다 뱉어  
풀어낸 기억들은 몇 권의 책으로 엮었다. 김석순, 나무책, 시  
집수, 오삼순... 책을 통해 맞고 살던 어름도 찾았다. 내 인생  
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이 기록이 되는 것들은 놀라웠다. 아예  
활용마을 어장들은 모두 시인이고 작가다.

바닷가 마을 오래된 폐교에 오던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처럼 학기가 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다.  
다행히 학교를 만든 사람은 고창의 해리포터로 불리는 이대  
건(49)이다. 도축장이 될 뻔한 폐교를 2000년 인수해 누구나  
책을 만들 수 있는 ‘책마을해리’로 변신시켰다. 이곳에서 이치  
는 온장으로 통한다.

‘책마을해리’의 슬로건은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다.  
책과 곳곳에는 기울면은 책 17만권이 책의 숲을 이루고 있  
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일은 전부 ‘읽고, 하고, 쓰고, 보내기’  
의 과정이다.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따라서 해보고, 한 일  
을 써서, 책으로 보내는 것이다. ‘책마을해리’에서는 이를 위

한 다양한 마을학교가 열린다. 시립학교, 민회학교, 그림책  
학교, 시골학교, 생태학교, 독서캠프, 정호연학교, 책주 토요일  
고창지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책학교’, 목공작  
업을 직접 해보는 ‘건축학교’, 보령달 뜨는 달 책과 관련된 영  
화를 상영하는 ‘책영화학교’ 등이 끊임없이 진행된다. 활물마  
을 어장들을 위한 마을학교 이름은 ‘말 대다 땅짓사리아다.  
‘책학교’ 말 대다 땅짓사리아처럼 태두 이어지는 크로그랜드도 있  
고 당일 혹은 2~3일 캠프도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작할  
때 책마을해리 부근 시작된다. 그만큼 진지해진다. 학교,  
커뮤니티 등과 연계. 책을 통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계간으로 마을신문도 제작하고 있다.

마을학교를 통해 지금까지 출판된 책은 90여권, 권과 모으  
기 행사까지 합하면 120여권이다. 경주지진을 주제로 고등학  
생 12명이 함께 쓴 ‘흔들리며 흔들리지 않겠다’는 2007년 우수  
출판 콘텐츠인 ‘책마을해리’도 선정됐다. 책마을해리는 세 개  
의 출판자를 운영하고 있다. 연례로 시책을 내는 ‘도서출판 기  
역’, 어린이·청소년 전문 출판사로, 그림책 전문 ‘책마을해리’  
이다.

책이 위망당하는 시대에, 책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보겠다  
고 겁 없이 나선 것도 놀랄지만, 그 무모한 도전이 사람을 불  
러들이고 마을을 바꾸면서 성장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은 되  
놓일다.

현재 ‘책마을해리’는 마을학교 참가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 도서관을 판매가 등 ‘마을의 학교’를 변화시키려는  
연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버스들  
대렬한 단차가 몰려온다. 미흡이 전국 곳곳에 또 다른 책마을  
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책마을해리’ 마을 사업을 시작한  
초석이 많이 들었고 있다. ‘책마을해리’의 촌장은 말한다. 오는 5  
월에는 200명 고창 안국이도서점이 책마을해리 일원에서 개  
폐된다. 책주 수원이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전국책마을다. 지역  
출판사들의 대규모 출판과 고창군이 유치한 것은 ‘책마을해리’  
가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꿈이 일으킨 마을이다.

### 세계의 책인지를 아리아리아 2018' 선정

이대건 촌장이게도 마법 같은 일이 생겼다. 오는 4월 4일 방  
표되는 우리나라 12번째 아리아리아 책으로 선정됐다. 세계 사회  
적 기업가들의 기부인 빌 드레이본이 설립한 아리아리아는 세로  
로 아리아리아 세계 곳곳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책  
인지를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선정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

종이와 활자의 감성으로 이루는 책과 마을,  
인문공동체

## Ground & Figure





# 1:1,000

언제나 독자에서 갑자기 저자로

관계가 바뀌는 마법, 해리포터즈  
활자 스스로 갖는 확장성









08 마을신문 하리

**마을신문 하리 청소년기자단을 소개합니다**

마을신문 하리 청소년기자단은 마을신문을 통해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신문을 통해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신문 하리 청소년기자단**

마을신문 하리 청소년기자단은 마을신문을 통해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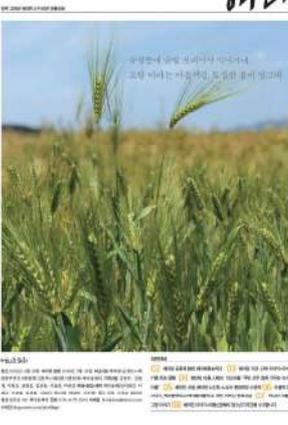
**마을신문을 위한 시민의 역할**

마을신문을 위한 시민의 역할은 마을신문을 통해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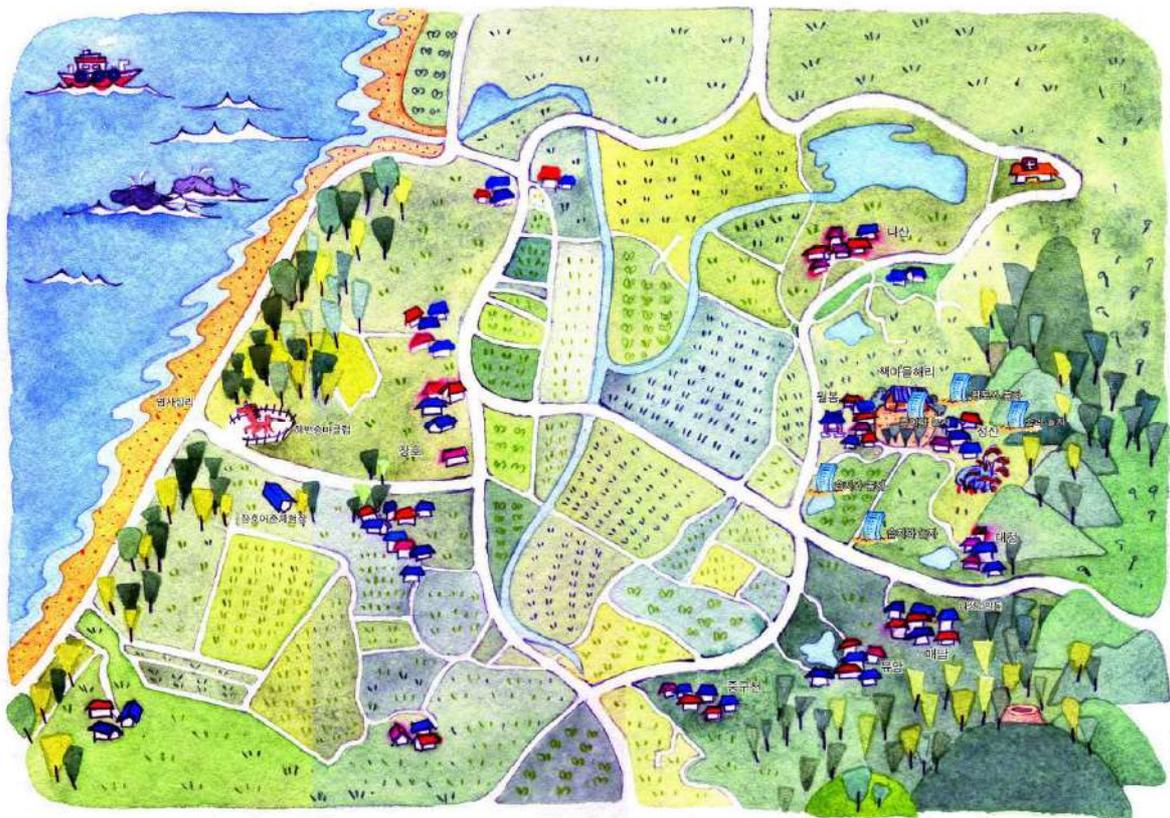
**마을신문을 위한 시민의 역할**

마을신문을 위한 시민의 역할은 마을신문을 통해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2018 봄 마을신문 하리









## 해리 — 나성 — 월봉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 **책마을해리** picturebook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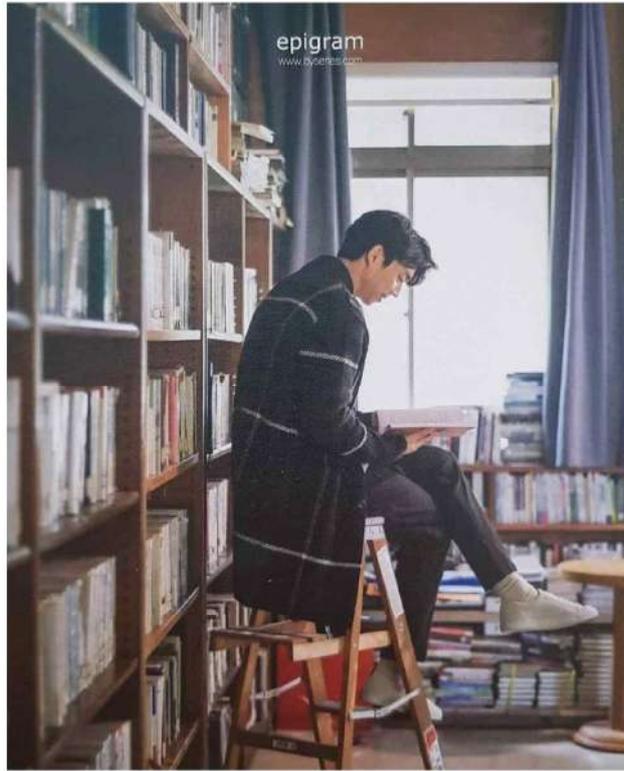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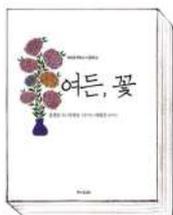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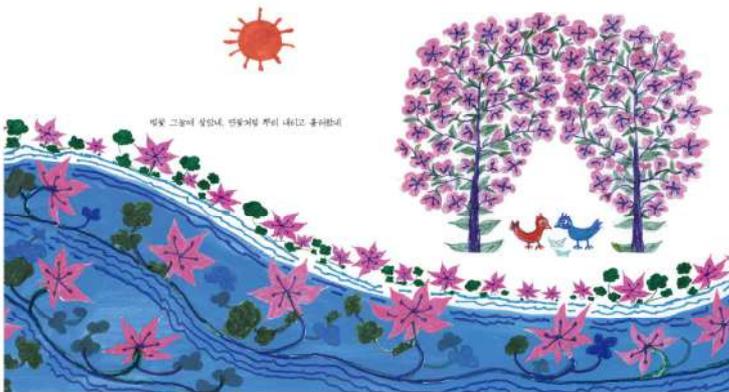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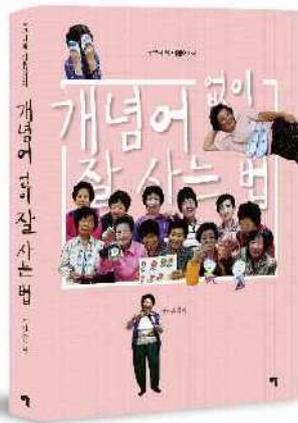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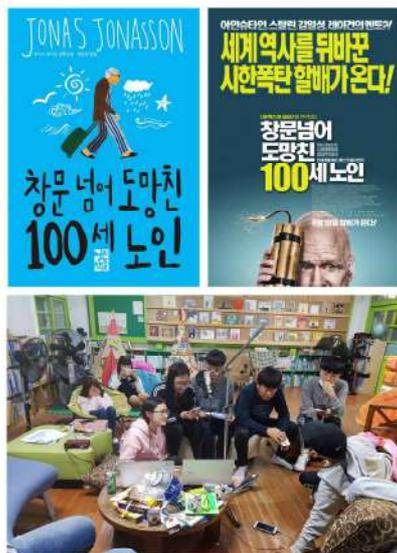




## 마을학교/ 발매다땀짓거리











만 가지 꽃으로 피고 피어 가다릴 테니.





[발표 3]

# 도시재생 창동골목에서 놀기 리빙랩

▶ 김경년 :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





# 도시재생! '창동골목에서 놀기' 리빙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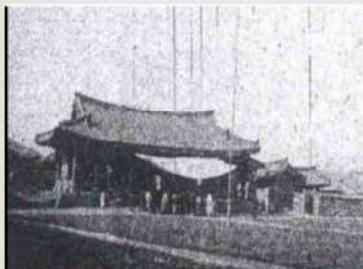


오래된 미래, 창동  
골목을 실험하다!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김경년



## 1760 조선 - 조창 근대도시의 시작



조창의 본 건물인 유청당 이라고 하는 아주 웅대하고도 멋지게 지은 건물이 이 은행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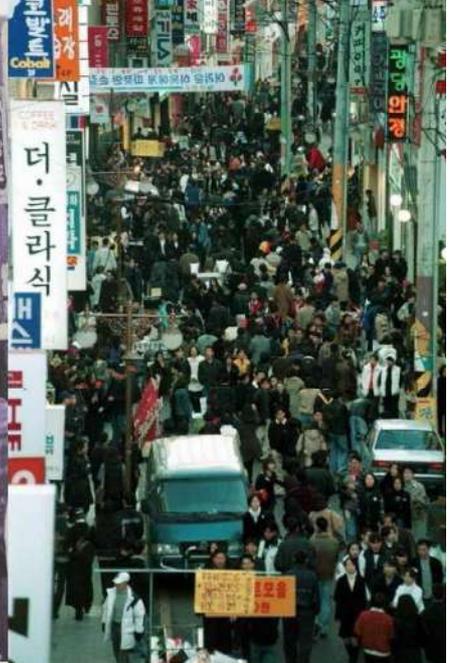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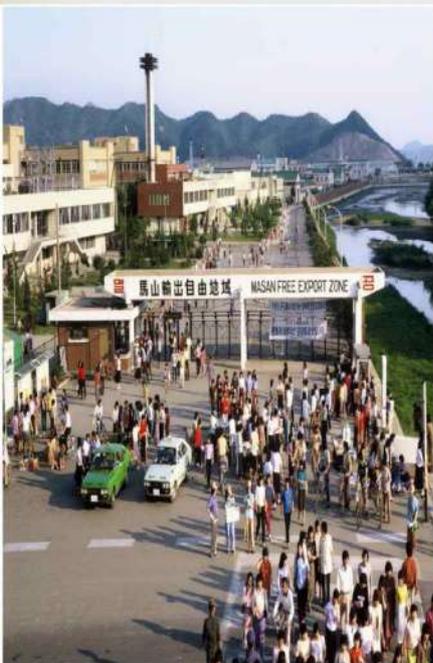
# 1960.3.15 저항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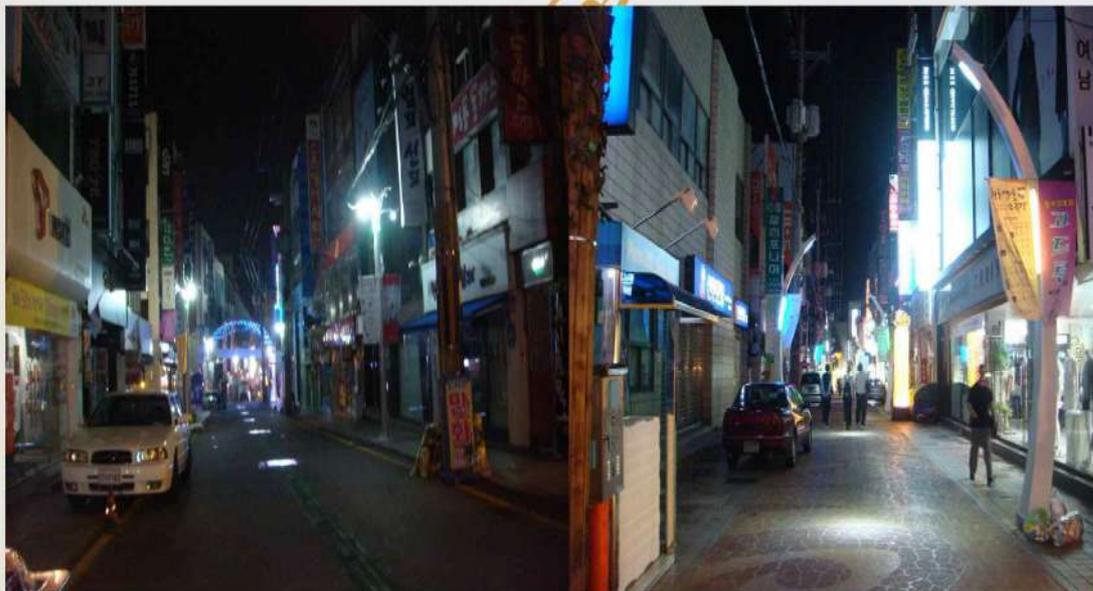
3월 15일 민주당사 앞 <표를 받기 위해 모인 시민들>



# 7대 도시, 다방천국. 응답하라 1994



**2007년모두가 떠나버린 시간,  
- 어둠의 거리. 골목 어떻게?**



**2011년 행정의 첫실험!**

**- 어둠.쓰레기.빈점포. 텅 빈 골목**



## 2012.5.25 창동예술촌



## 오직 골목!!

꽃골목을 꿈꾸며!! 골목을 실험하다



김경년

2월 25일 오후 3:51 · ♡

작은 실험으로 창동예술촌 (문신예술) 골목을  
꽃으로 피우다!!

1908년 경남최초의 근대적 시민운동의 산실이었던 마산 민의소  
(민중의 의지를 모으는 곳)가 창동64번지 옛 시민극장입니다.

2012. 5 창동예술촌 문신예술골목으로 변화된 골목을 중심으로  
올해 55주년 마산3.15의거(보도연맹 학살사건이 3.15의거 배경중 하나)를 맞이  
하여 민의소 장소성을 되새겨 보면서

1인1꽃화분 315명의 시민참여를 통한 꽃골목 조성을 위한 작은 실험을  
하고자하니

그 뜻, 함께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월14일(토) 오후3시15분에...

315명의 꽃을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1인 1만원

농협 849-12-438128 김경년

# 2015년 주민의 첫 실험!

## 추진과정

*SNS를 통한 315명의 시민참여.  
1인 1화분 1만원 7일동안 315명 완료!*

- ❖ 첫 기부자 - 두 딸아이에게 315의미 되새긴 화분
- ❖ 94세고령참여자- 딸네들이 하는걸 보고 의미있는 동참
- ❖ 3월3일 화요일 경남도민일보 신문을 보고~
- ❖ 만나는 사람마다, 지인, 페이스 자발적 참여자
- ❖ 창동예술촌 협업.작가들의 손길- 고무통 색칠하기

## 추진성과

*초록으로 물든 골목. 참여자유입 상권 향상시너지. 포토존*

## 문제점

*화분물주기, 강통부식. 골목고양이 배설물*

2015년 (제55주년 3.15의거)  
**315명 시민의 힘으로!**





**2017년. 제57주년 3.15의거**  
**3번째 스토리-버려진 골목!**  
**희망나무로 우뚝!**



**2017년. 제57주년 3.15의거**  
**3번째 스토리-버려진 골목!**  
**희망나무로 우뚝!**

**추진과정**



**SNS를 통한 315명의 시민참여 희망메세지**  
**4일동안 지인, 페이스북 참여자 완료**

- ❖ 창동예술촌 작가들의 손길- 315개 나무판, 밑그림. 희망메세지
- ❖ 빈 벽면 정리 후 희망나무 2그루 그림작업
- ❖ 315개 희망나무판 부착

**추진성과**

*지속적인 행복한 포토존 흔적 남기기.*  
*메시지 읽는 행복*

**문제점**

*큰 문제는 없으나 가끔 나무판 떨어짐*

**2018. 제58주년 3.15의거**  
**4번째 꿈을 그리다!!**





## 10여일 동안 낮과 밤을 골목에서 붓을 놓지않은 작가들과 진행

- 1) 나무판 440개작업 (동그라미, 타원형, 하트모양)
  - 2) 밀바탕 색칠하기
  - 3) 가족염원 모으기(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외 시민)
  - 4) 낡은 벽 긁고 정리하기
  - 5) 나무 밑그림 색 - 마산예총회장. 창동예술촌작가
  - 6) 마음 함께 보탠이 - 나비그림 송영은 작가
  - 7) 마음 함께 보탠이 - 병아리 그림 김경현작가
  - 8) 엄청 큰 마음 보탠이: (주) 대현산업개발 이재민 대표
- >>> 골목 주변 건물 칼라도색 무료기부

9) 콩나물공장 대정식품- 100개 기증

10) 창원시 도시재생과 차유원 주무관의 적극 도움으로

- 창원시 산림과 나무 후원(동백나무18그루 남천 160 산철쪽 50)

11) 4월 4일(수) 오전 10시,

오동동주민자치센터 재난방지단 및 통장협의회 40여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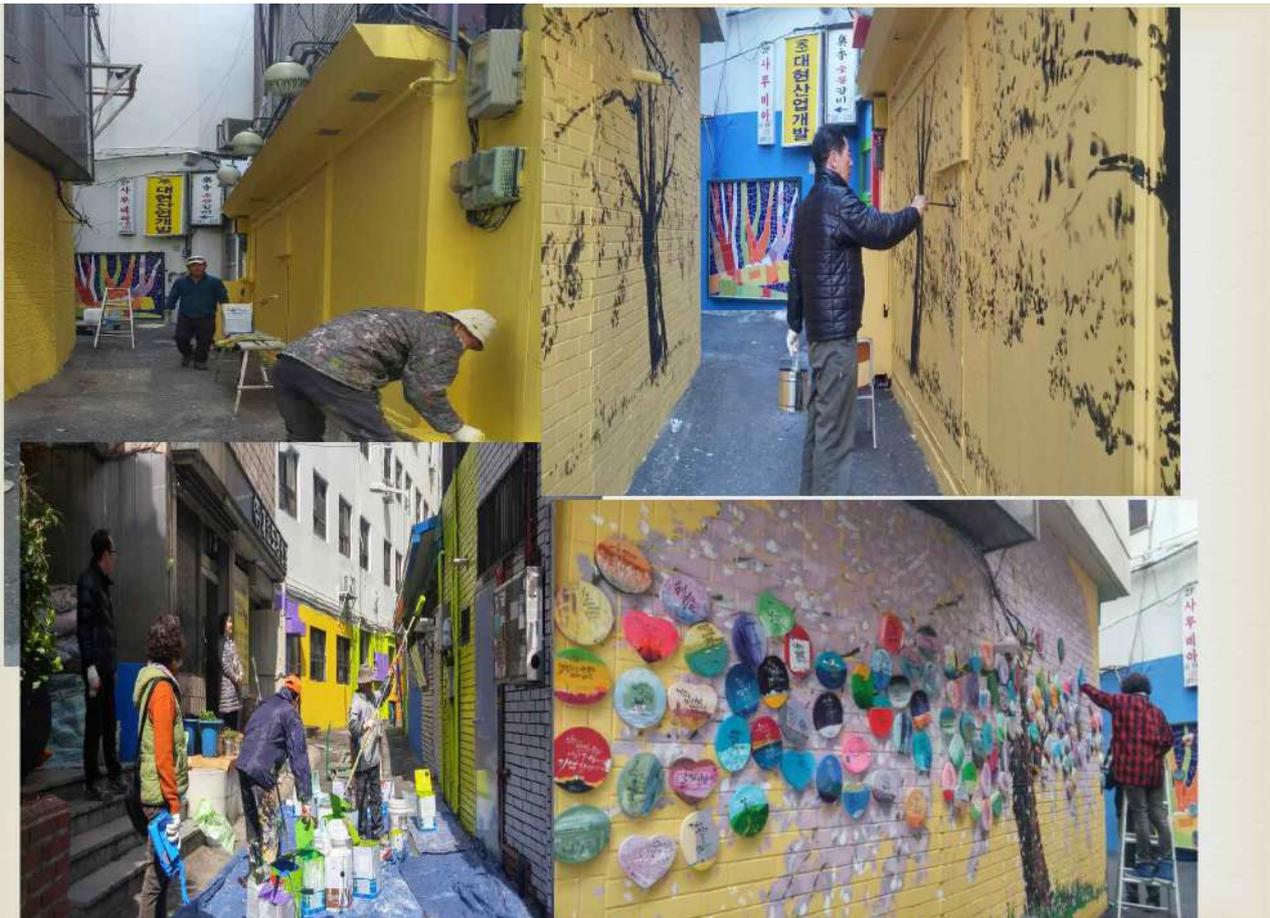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20여명 참여, 2시간만에 마무리

12) 4월5일 목요일 오후 5시 3.15가족나무 소소한 오프닝

13) 3.15의거 기념사업회 (베고니아꽃.나무책갈피

14) 강신형 창동골목 시(벽화)

15) 축하해주기 위해 달려오신 많은 분들...



# 골목정원을 꿈꾸며!



# 리빙랩 실천!



- 1 골목이 꿈틀거린다
- 2 골목이 웃는다
- 3 골목이 춤춘다
- 4 골목이 창동의 새로운 힘!



[토론]

# 지역혁신과 리빙랩

▶ 양정보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장





대학리빙랩네트워크 포럼 토론원고(2019.11.7., 산학협력EXPO)

## 지역혁신과 리빙랩

양정모(한국연구재단)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과 리빙랩(Living Lab)을 이야기할 때, 공통점을 찾는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수행 주체가 먼저 떠오르는 건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대학리빙랩네트워크가 지난 7월 발족하는 등 대학의 살아 있는 지역혁신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국가가 추진하는 다양한 대학지원사업에서 지역과 소통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지역혁신과 지역산업 기반 경제발전에 대학의 역할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연구지원사업,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등 R&D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을 경험했고, 인문사회기반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을 통해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대응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연구지원 과정에서 겪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공급자 중심의 문제해결 접근에서 오는 활용의 미흡함에 항상 대내외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문제해결형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빙랩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당시 수요자 기반의 사회문제해결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와 성과 모니터링 등의 과정에서 시민, 기업 등이 참여하여 수요자 관점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교육부의 LINC+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서 지역혁신의 실현을 앞당기하고자 대학리빙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방향성의 차이에서 과기부의 리빙랩과 다른 점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대학이 같이 발굴하고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지자체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던지는 문제를 연구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접근이 다른 것이다. 또한 해결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하고 교육의 성과로 이어져 참여자의 경력 관리에 반영되는 선순환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다.

산학협력 이론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트리플헬릭스 모델(Triple-helix model)이 산·학·연 또는 관·산·학의 협력을 통해 양자간의 산학협력보다 확대된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인데, 이 모델은 수혜자로서의 시민이 참여자로서 혁신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쿼드러플헬릭스 모델(Quadruple-helix model)로 발전한다. 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 모델을 분석해보면, 새로운 혁신주체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_4C_3 = 4$  개의 트리플헬릭스 모델 전략이 추가되고 관·산·학·민 혁신주체 간의 다양한 활발한 협력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확장된 산학협력 모델의 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 UN이 선언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는 201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이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말한다. 유엔이 2015년 인류의 생명연장과 건강한 지구의 번영을 위해 제안하고 유엔 참여국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SDGs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이 17개 목표로 되어 있다.

THE 2030 AGENDA IS THE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It aims to transform our world and to improve people's lives and prosperity on a healthy planet. It applies to all countries through partnerships and peace. Countries, regions, cities, the business sector and civil society are actively engaged in implementing the Agenda and the SDGs. They are mobilizing efforts to end all forms of poverty, fighting inequalities and tackling climate change, while 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 The summit will be a space to discuss the huge efforts that are being made and to identify future actions for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SDGs.



<그림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www.un.org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세계대학평가기관(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2019년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University Impact Ranking)를 위해 유엔이 채택한 SDGs중 11개 목표를 대학의 사회적·글로벌 영향력을 평가 지표로 도입하여 기존의 연구력 기반의 순위와 차별적인 대학순위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희대와 성균관대가 종합순위 27, 30위로 국내 대학 중 100위 안에 들었고, 연세대는 SDG 9번, 경희대는 SDG 11번 지표에서 세계 1위 대학으로 평가되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연구재단은 금년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프로젝트 수행 기관으로 인증 받아 글로벌 기관으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 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자리잡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정책으로 대학리빙랩이 확장되고 대학리빙랩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혁신 정책실현의 리더가 되길 바라며 토론을 마친다.



[토론]

# 지역사회 혁신과 대학리빙랩 추진

▶ 정은희 : 경남대학교 LINC+ 지역사회혁신센터장





## 지역사회혁신과 대학리빙랩 추진

### -대학리빙랩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례-

정은희

(경남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사회혁신센터장)

#### **‘구성원들과 리빙랩 비전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경남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주요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문제해결형 리빙랩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남대학교는 입학생의 80%가 경남지역 출신이며, 졸업생의 80%가 경남지역에서 취업하는 명실상부 지역밀착형 대학임을 인지하고 대학발전 비전과 인재상을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감동 대학’,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창의융합 지역인재’로 설정하여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학내 교육혁신포럼과 각종 토론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연구위원 초청 리빙랩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존에 대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해온 협력활동들을 리빙랩방식으로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실현하는 혁신적 접근방식으로 리빙랩을 연구하고 적용하면서 2018년 7월 ‘도시재생과 지역사회혁신 리빙랩’ 주제로 제9차 한국리빙랩네트워크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자기혁신역량 제고와 함께 리빙랩 플랫폼 고도화를 향하여’**

경남대학교는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혁신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이 스스로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공유인식을 가지고 경험기반 교육체계 확립, 창의융합 교육과정 확대, 오픈캠퍼스 구축, 지역사회(산업)연계교과목 운영, 혁신적 교수법 연수 및 교수동아리 발굴 지원, 청바지(청춘들이 바꾸는 지역사회)프로젝트 등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및 학생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LINC+사업단 지역사회혁신센터에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대학외부 조직과의 활발한 연계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만남을 주선하고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맞춤형 리빙랩지원단을 조직하여 실제적인 협업활동을 전

개하며 리빙랩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남대학교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지역사회혁신에 관심있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와 학생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설자원을 확충해 가며, 학내 리빙랩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분석하면서, 대학 리빙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대학교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 리빙랩 지원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생과 대학 그리고 지역이 함께 일구어나가는 리빙랩 사례,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과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사례1 : 리빙랩으로 지역특화 자유학기제 콘텐츠 개발 및 원도심 활성화 두 마리토끼를 잡다**

2013년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참여형 수업과 학교밖 자유학기 활동을 진행하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처가 부족한 지방 학교들은 자유학기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경남대학교가 위치한 마산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마산지역은 전통시장 쇠퇴 및 도시재생의 지역사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경남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와 학생, 창원시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창동상인회,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역 중학교가 함께 마산원도심 체험활동 ‘골목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학기 약 2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 중학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원도심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는 경남대학교 사범대 8개 학과가 참여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을 마산원도심 교과연계형 ‘골목여행’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학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 협업하고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콘텐츠로 개발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2개나 수상하기도 하였다.

### **사례2 : 리빙랩으로 주민주도형 으뜸마을만들기를 시작하다**

창원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꽃길 조성, 벽화그리기 등 1회성 사업내용이 많고 주민참여율도 낮고, 전문업체를 통한 단순 용역성 사업 추진의 문제가 지적됨으로써 사업의 질적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 LINC+사업단에서는 2018년도 올해 선정된 으뜸마을 중 4개의 마을(교방

동, 봉암동, 반월중앙동, 창원중앙동)과 창원시지속가능협의회, 공무원, 민간단체, 기업 등과 함께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사업을 다시 정비하고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및 학생,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리빙랩지원단을 발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 및 사업을 연계 추진해 가고 있다.

특히, 교방동은 대학교수와 학생, 마을의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등 40명과 함께 이틀 동안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하여 도시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문화를 지키고 교육하기를 의제로 삼고 ‘사라져가는 교방동보물찾기’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교방동 리빙랩 참여자들은 마을에 대한 주민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 마을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고 있다. 올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되며 창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대학연계 리빙랩 활동에 특히 주목하고 우수사례로 추진 중에 있다.

### ‘경남대학교만의 지역연계 교과목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경남대학교는 대학생들을 지역사회혁신가로 길러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 중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지식을 연계하여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리빙랩의 형식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교과목이 있다. 기존에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사회의 제반 문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산업)연계 교과목’이 바로 그것이다.

경남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청년지역사회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바지(청년들이 바뀌는 지역사회)프로젝트 중 하나인 지역사회(산업) 연계 교과목은 지역사회(산업)와의 소통 및 연계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산업)의 제반 문제를 발굴하고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조사연구보고서 작성, 지역 문제 해결 방안 계획수립, 혁신아이디어 현장 실천 및 적용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리빙랩 교과목이다.

처음 시작된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2,723명의 학생들이 청년지역사회혁신가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학기 지역현장을 방문하며 지역 관계자들을 만나서 함께 협의과정을 거쳐 혁신교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매 학기 약 100개 이상의 리빙랩지역사회(산업)연계 교과목의 결과물들은 학기말 ‘청바지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우수성과들을 함께 공유하고 격려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음은 지역사회(산업)연계 교과목 리빙랩 프로젝트의 우수사례 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 「여름 17도, 겨울 27도」 도시재생 지역 완월동 할머니 ‘삶’ 책으로 펴냈다**  
 - 사회학과 ‘문화분석과 기획’ 교과목  
 - 2017학년도 2학기 청바지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

2017학년도 2학기 사회학과 ‘문화분석과 기획’ 강좌 수강생 ‘완월동 지역주민 구술 생애사 작성팀’ 김주영·신영웅·정광호, 4학년 김명규 학생을 포함한 총 16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사는 송종남(86), 조외순(72), 배상연(71), 안역순(64) 네 분의 할머니들을 한 학기 동안 만나 이들의 인생 여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에 끄집어내어 주었다.



사진설명 : 2017학년도 2학기 청바지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도시재생 지역 마산 완월동 네 할머니 생애구술사 작성팀

이들은 도시재생 지역 중의 하나인 마산 완월동은 주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지역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소개되지 않고 오히려 소외지역 주민의 삶은 무시되고 있는 문제상황을 인식하여 주민들의 생애를 교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구술 생애사 책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마산 완월동에 사는 네 분의 할머니들을 매주 찾아갔다. 작년 가을과 초겨울까지 외롭고 적적한 할머니들의 말동무가 되어 드렸고, 할머니들이 가슴 깊이 묻어두고 세상으로 꺼내지 못한 슬픔도 꺼내 함께 울었다. 1994년생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6·25전쟁과 3·15의거 등 질곡의 현대사를 생생히 듣기도 했다.

이들이 듣고 기록한 이야기가 ‘여름 17도, 겨울 27도’라는 한 편의 책으로 탄생했다. 수강생들이 직접 지은 이 제목은 여름에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온도 17도와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온도 27도를 떠올리며 할머니들이 삶이 내내 살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짓게되었다고 한다.

수업을 진행한 정재영 사회학과 교수는 책 소개를 통해 “할머니들의 인생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계절의 온도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다난한 삶이었지

만, 그들의 인생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지금도 완월동에 가면 느낄 수 있는 안온한 정감의 온도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러한 온기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제목이다”고 했다.

책에는 네 할머니의 출생과 유년시절, 혼인과 출산, 자녀 이야기에서부터 그들이 수십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완월동에 관한 이야기가 연표·사진과 함께 빼곡히 담겨있다. 6·25 전쟁 때 피란 당시의 긴박함,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한 애뜻한 마음, 먼 타지에 있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나고 대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배상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채록한 신영웅 학생은 “완월동에서 만난 할머니를 통해 개인의 역사를 사회의 역사로 만든 것은 물론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동네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어서 뿌듯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에게는 어떤 경험이었을까? 김주영 학생팀과 한 한기를 보낸 안역순 할머니는 “딸이 ‘엄마 자서전 한 권 냈네’ 하는 순간 너무 뿌듯했다. 소중한 친구가 되어 준 학생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사례2 : 「교방동 우리마을 보물찾기 미션」 마을 공동체회복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주민들이 함께 마을 보물찾기를 시작하다**

- 교육학과 ‘지역사회교육론’ 교과목
- 2018학년도 1학기 청바지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



사진설명 :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2018년 6월 4일 마산합포구 교방동 의신여중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서원곡 인근에서 ‘교방동 우리마을 보물찾기 미션’ 프로그램 진행사진임. 이번 교육은 경남대 LINC+사업단 지역사회(산업)연계 교과목으로 선정된 지역사회교육론(지도교수 정은희) 교과목의 교수와 수강생들이 지난 3개월 동안의 지역사회교육 리빙랩 실천프로젝트 추진의 결과임

지역사회교육론 교과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1학기에 운영되며 교과목 수강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혁신가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학기 교방동보물찾기팀 총 15명 수강생들은 본 교과목의 성격을 이해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가치로운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리빙랩(Living Lab)의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대상지이자 가치있고 오랜 역사와 문화, 스토리가 있는 마산합포구 교방동은 최근 도시 재개발로 인해 약 1,000여명의 주민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가면서 한 두 마을이 송두리째 사라졌고, 다시 새로운 아파트촌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래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소통부재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기에 더더욱 마을의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계승해가야 하는 마을의제를 지닌 마산 합포구의 교방동을 그 연구 대상 마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대학내 여러분야의 전문 교수들의 조언을 구하고 대학생, 교수, 주민센터 공무원, 지역주민(초중등학생, 각종 주민위원회, 일반 주민 등) 등과 함께 리빙랩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교방동투어, 주민워크숍 및 주민의견수렴 회의, 관계 공무원 미팅 등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인식조사 설문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을교육 콘텐츠 범위와 교구를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마을의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 마을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창원시으뜸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교방동주민들은 이러한 마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정체성 확립 및 마을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 ‘숨어있는 마을 보물찾기’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모색하던 중이었기에 더욱 더 경남대학교와의 협력활동에 반가움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교방동 우리마을 보물찾기 미션’ 프로그램은 step1 똑똑! 우리 마을이야기와 골든벨 → step2 출발! 교방 보물찾기 미션 ①미션캡슐을 찾아라 ②나만의 보물명작 만들기 → step2 심쿵! 보물 메시지 남기기 순서로 진행되며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물들을 소개하는 교육콘텐츠와 마을의 여러 스팟에서 미션수행형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디어, 교방동 우리마을 보물찾기 미션 프로그램이 6월 4일 교방동의 중요한 보물들인 의신여중 1학년 전체 학생들과 지역 주민, 관계공무원 등 약 70여명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의신여중 1학년 박시은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보물을 찾고 알리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했던 한어진학생(교육학과 2학년)은 ‘오늘 의신여중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뻐고, 저희 대학생들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교수님들과 주민들과 함께 개발한 마을교육 프로그램이 더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어 행복한 교방동, 소통과 화합이 잘 되는 교방동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전문가, 지역사회혁신가로 활동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주었다.

이렇게 주민간의 갈등,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소통의 부재,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의식 부족 등의 여러가지 마을문제가 제기 되는 교방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학생, 교수, 지역주민, 공무원, 청소년 등과의 협업구조를 형성하여 청소년대상 마을교육프로그램을 우선 기획하고 의신여중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교방동보물찾기팀의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에 고취 등의 성과를 거두면서 리빙랩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교방동 우리마을 보물찾기 미션’ 프로그램은 마을교육콘텐츠와 미션수행형 활동 교구 등이 제작되어 향후 마을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점을 평가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청바지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또한, 1학기 지역사회교육론 교과목이 종강된 이후에도 몇몇 수강생들은 지속적으로 교방동의 보물찾기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혁신가로서의 청년의 삶을 실천해 가고 있다.

경남대학교는 이렇게 청년지역사회혁신가 양성과 행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공동체형성 비전 실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리빙랩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지역사회 혁신적 변화를 주도해 가는 혁신적 지역밀착형 대학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고 있다.





[토론]

## 주요 리빙랩 프로젝트 소개

▶ 김성우 : 커넥티드컴퍼니 대표





김성우  
(주)커넥티드컴퍼니

도시(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기반의 해법을 찾아내는 리빙랩 프로젝트와 이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기회와 가치 있는 해법을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소셜미션 스타트업으로 성장시켜나가는 컴퍼니빌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리빙랩 프로젝트

### 1. 전남대학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리빙랩

“친정엄마”라는 이주여성을 위한 앱서비스를 개발한 유엔비즈와 전남대학교, 광주 다문화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한 리빙랩 프로젝트로 국내에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는 리빙랩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재학생들이 주축으로 리빙랩 활동을 진행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국적, 다양한 국내이주기간의 여성을 섭외하여 수차례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2개월의 기간동안 4가지의 새로운 문제정의와 해결방법을 제안하여 유엔비즈의 “친정엄마”서비스의 후속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2. 청주대학교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청주지역의 도시(지역)문제를 청주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리빙랩 팀을 구성하여 각각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어 테스트해보고 그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프로젝트를 2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4가지의 도시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이 나왔고 이 중 1가지는 청주지역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 3. 성균관대학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문제를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리빙랩을 기초로 사회문제의 이해당사자를 깊이 이해하는 작업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해결방안과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함께 개발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4개월의 과정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다수의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선정과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진행한 리빙랩 프로젝트의 경우,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성과도 높은 편이었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리빙랩을 통한 창업 관련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 충청권 사회문제 해결 활동의 경험과 과제

▶ 김영아 : 충남대학교 교수





# 충청권 사회문제 해결 활동의 경험과 과제

## (충남대학교 리빙랩 현황과 미래)

자료작성: 충남대학교 LINC+ 사업단 김영아 교수

### 1. 충남대학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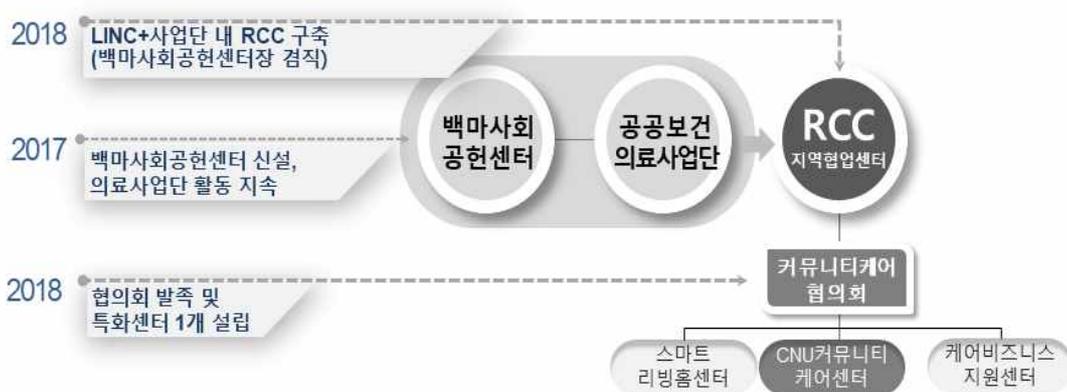
- 충남대학교의 사회문제 해결 활동은 LINC+ 사업단의 지역협업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총장 직속기구인 백마사회공헌센터(신설, 2017.06.12.)의 센터장이 지역협업센터(RCC) 겸무를 맡아 대학과 LINC+ 사업단이 하나가 되어 운영되고 있음
- 충남대학교 RCC 설립(개정, 2019.02.01.) 운영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충청권 산학협력 대표 대학



[충남대학교 LINC+ 사업단 비전]



[충남대학교 RCC 설립]

### 2. 충남대학교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브랜드

- 지역사회 혁신 주체로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포용과 연대'라는 의미의 'I SEE U' (상표출원 40-2019-0158621, I Socially Embrace and Engage with U)
- 커뮤니티 케어: **CNU care** (상표출원 40-2019-0026811)

### 3.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 사례

#### 사례 1. 사회문제해결 R&D 과제를 통한 시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활동

구분	연번	프로젝트명	학과	교수명	비고
커뮤니티케어	1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기반 조성 및 의료·건강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지원 ICT 통합 솔루션 개발)	간호학과	박명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ICT 통합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충남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원(사협), 민들레의료사협, (협), 세상속의과학이 협력
	2	대전지역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체계 및 재활용품 부가가치 향상 방안	환경공학과	현재혁	대전지역의 산발발생시 불쓰기개 역할을 하는 임목부산물인 바이오메스와 폐플라스틱을 혼합하여 고품연료제품을 제작
	3	금산산림문화타운내 생태치유숲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산림환경자원학과	박범진	금산시의 50~60대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중년층 및 장년층의 개인이용에 대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숲길 조성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 조성
	4	호동근린공원 자연치유 활성화 방안	산림환경자원학과	박범진	대전시 호동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치유 시설 설치
	5	비도심지역 맞춤형 노건 및 건물목 교통안전시설물 사업화	토목공학과	이민재	지역특성상 인도가 아닌 길가장자리로 통행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한 교통안전 시설물로서 야간이나 새벽에 통행시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주며 보행자의 안정감을 향상
도시재생 및 농산촌 재생	6	유성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기획	건축공학과	이정수	유성구에서 필요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뉴딜사업 전개
	7	어은동 Share Platform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건축공학과	이정수	KAIST와 충남대가 연결된 유성구 어은동 지역의 청년 창업 공간 등에 대한 고민
	8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2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	사회학과	정선기	세종의 구도심인 조치원을 젊음이 넘치는 곳으로 재생
	9	지역농업특성화 깻잎가공식품 개발	식품영양학과	육홍선	금산지역의 특화상품인 깻잎에 대한 다각도의 상품화 전략
지역문화컨텐츠	10	지자체 디지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및 자동 인덱싱 기술 개발	컴퓨터공학과	이규철	지자체의 다양한 기록물을 자료를
	11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	경제학과	안기돈	창업공간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경제성 분석

#### 사례 2.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벤처 학생창업

○ 청춘밭아 협동조합 법인 설립(2019.6.5.)

- 구성원: 충남대 학부생으로 식물자원학과, 한문학과, 원예학과 등 8명으로 구성
-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장을 네이버팍스토어 입점시킴. 생산한 것을 온라인 플랫폼 연결
- 1차: 성산농장(표고버섯농장), 2차: 마을기업 문당쌀이야기 스마트스토어 살짚빵
- 3차: 사회적기업 충남당진 백석 올미영농조합 할머니들 수제한과 노인일자리 창출

-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체인 '엘리시움' 창업
- 헬스케어, 의료기기개발: 영상처리기술 기반 실시간 자세 불균형 측정 의료기기를 아이템으로 학생창업



### 사례 3. 지역사회 공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을 통한 리빙랩



- 중국어네이밍 캡스톤디자인, 사회문제해결 캡스톤디자인, 소비자정보(종합설계) 등 17개 교과목 운영
- 사회문제해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신설: 2018년 2학기
- 시민참여 확대: 캡스톤디자인 FM(Father and Mother) : 지역의 시민 참여단 모집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캡스톤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및 해결, 반영
- 지자체의 관심 증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학협력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 유성구+대학청년 자문단 활동(240여명)을 통한 지역의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
  - 유성란: 유성온천수를 활용한 수비드 계란, 유성온천문화축제 드레스코드 2종 제작
  - 유성구 온천문화축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
  - 2020 축제에 killer contents로 온천수로 삶은계란, 목욕가운, 양머리띠를 이용하기로 함(유성란팀 등의 의견 및 작품 반영)
  - 2020년 유성구 주요업무 계획에 유성구 공식캐릭터 '유성이' 정비 사업 반영함(유돌-E팀의 유성구 공식캐릭터 변경 및 유성구 마크 변경에 대한 의견 반영됨)
  - 2021년에는 유성구 마크 변경에 대한 예산 반영 예정(유돌-E팀의 유성구 마크의 가운데에 원자력의 의미에 대한 반론이 반영됨)

### 사례 4. 지역사회 공헌 동아리를 통한 리빙랩 구현

- 목적: 동아리팀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발굴, 해결하여 지역, 지역민에게 기여하고자 함
- 동아리팀수: 15개, 프로젝트 15개, 참여인원: 1,423명 ○ 운영시기: 2019학년도 2학기
- 문화컨텐츠 분야 7팀(ART0(아트영)팀의 청년예술가 이동 전시회 개최 지원 등), 커뮤니티케어 분야 7팀(가온길 팀의 소외된 이웃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 사례 5. 지역사회 혁신 교과목을 통한 리빙랩 구현

- 목적: 학생, 교수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전문가, 지자체, 활동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여 지역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시기: 2019학년도 2학기
- 과목수: 9개(간호학과의 통합적 건강교육 실무, 디자인 창의학과의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등)





[토론]

# 대학 리빙랩에 대한 논의

▶ 김민수 : 동국대학교 교수





## □ 대학 리빙랩에 대한 논의

김민수(동국대학교LINC+)

- 대학 리빙랩은 운영에 있어 몇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발견 되는데
  - 첫 번째는 리빙랩 운영을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 많다는 점임
    - 동국대, 경남대 등 대학 리빙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몇몇 대학의 사례를 따라 여러 대학이 캡스톤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
    -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리빙랩이 대부분이어서 교육과 연계된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진행
  - 두 번째는 재래시장 개선사업,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바이오나 헬스케어, 디자인 등 비이공분야 중심이 되는 사업이 많음
    - 현재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대부분이 지역사회 혁신과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사업의 방법으로 리빙랩을 채택하고 있어 공학적 접근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적정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일반적인 리빙랩의 성격과 다른 형태인데, 이것 역시 LINC+사업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세 번째는 지나치게 정량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점임
    - LINC+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리빙랩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요구하는 정량적인 성과(참여인원, 기술개발실적 개수, 관련 논문 개수 등)에만 집중하여 실제 중요한 문제 해결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
    - 정량적인 실적에 경도는 대학마다 학교 역량과는 무관하게 너무 많은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고, 리빙랩의 목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참여인원과 개발 개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 네 번째는 리빙랩의 구조 및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나 운영 시 최종수요자를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등 리빙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함
    - 몇몇 대학의 리빙랩은 최종수요자를 ‘그냥’ 지역사회 시민-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이 아닌- 으로 하여 연구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어떤 경우는 리빙랩을 협의체 운영과 혼동하거나 마을연구단 구성을 리빙랩으로 인식하여 연구단 구성만으로 리빙랩을 끝내는 경우도 있음
    -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그냥’ 지역사회 주민- 리빙랩 운

영을 위해 모아놓은-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리빙랩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다섯 번째는 지속가능성을 고려에 두지 않고, 단발성, 일회성 사업으로 리빙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LINC+ 대학 대부분이 1년 단위로 리빙랩을 종료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속가능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
  - 어떤 경우는 교육과 연계되어 1학기에 끝나는 경우도 있음
  - 기간이 꼭 1년이나 1학기면 안되는 것인 아니나 이를 맞추기 위해 문제해결이 최종수요자의 필요보다 기간적 필요 맞추는 상황이 발생
  
- 여섯 번째는 너무 적은 예산으로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음
  - 정량적 실적 위주의 리빙랩 운영과 맞물려 더 많은 리빙랩을 더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 정성적 우수사례를 위한 가이드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선도모델을 확산시킬 성과교류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
  - 교육부의 LINC+ 사업의 경우 정성적 평가가 70%이나 대부분의 학교가 리빙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정량적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
  
- 대학의 역량에 따라 집중할 리빙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특화분야 적합한 리빙랩을 선택하여 분야별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대학이 도시재생 리빙랩이나, 마을만들기에만 리빙랩을 운영하는 것 보다, 미세먼지, 노인문제, 장애인 영화관람 어플개발 등 대학의 특화분야와 역량에 맞는 리빙랩운영이 필요함
  
- 대학리빙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빙랩을 운영하는 대학과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들 모두 아직까지도 정확히 리빙랩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 기 제작된 ‘리빙랩 가이드 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해 보임
  - 리빙랩 강연이 아닌 기초적인 리빙랩 교육도 필요해 보임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 발굴이 필요
  - 기술사업화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공유모델에 기반한 사업화 도 계속 발굴 소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외 사례를보면 네덜란드의 겨우 리빙랩과 교육의 연계를 추진할 때
    - 빈데스하임 실무중심대학의 경우 실무노인학이 4년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음
    - 대학의 2학년 전체가 리빙랩에 참여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



- 학생 2명과 노인1명이 함께 문제를 연구 할 수 있도록 리빙랩을 설계하고, 리빙랩의 결과로 시장에 판매가능한 제품, 서비스 개발이 목표로 추진  
⇒창업과 연계
- 지역혁신사업에 대학이 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운용중인 리빙랩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사업과는 별도로 대학내 관련 예산과 조직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